문예통신

민족문학예술운동을 활성화하자 !
발행: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2(2013)년 7월 27일
제1호

문예동홋가이도지부 결성

지난 4월 19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홋가이도지부가 새로 결성되였다. 뜻깊은 결성모임에 참가한 문예동중앙 김정수위원장의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일본의 북단에 생긴 민족문학예술운동의 거점

4월중순인데도 홋가이도 札幌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문예동홋가이도지부 결성준비위원회 홍건일위원장은 千歳공항까지 차를 몰고 나를 마중하러 나왔었다. 차간에서 홍건일준비위원장이 결성에 이르는 경위를 설명해주었는데 문예동의 결성을 기다리는 애호가들과 동포들의 열의를 뜨겁게 느끼였다.

우리를 둘러싼 정세가 이토록 엄혹한 상황속에서 조직을 지탱하는것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새로 문예동지부조직을 내온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차창밖으로는 눈이 녹지 않는 산발들이 우렷이 안겨온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일본의 북단《다꼬베야》에 끌려와 강제로동에 시달린 1세의 원한이 깊이 스민 곳, 후대들에게 다시는 노예살이 설음을 주어서는 안되겠다고 학교와 기숙사를 덩실히 세우고 대를 이으면서 우리 말과 우리 노래를 울려온 곳, 여기에 민족의 표징인 말과 글, 문학과 예술을 지키고 빛내이는 문예동의 결성을 선포하게 되였으니 나는 높뛰는 가슴을 억누를수 없었다.

결성모임에는 43명이 참가하였다. 총련홋가이도본부 박정성위원장을 비롯한 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이 다 참가한걸 보니 동포사회를 문화로 견인하자는 본부의 지향과 정열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뜻깊은 결성모임에 참가한 소중한 새 맹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가…

비행기안에서도 내내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이라도 해야겠다. 하나는 시, 가사, 노래, 춤, 그림 등 모든 분야에서 홋가이도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것이 우리의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이 작품들로 책도 펴내고 공연과 전시회도 특색있게 조직하여 이 원한이 스민 땅에 민족성 고수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자!

결성모임이 끝나자 상공인인 나의 대학동창생이《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과업을 제기하지 말라.》고 내 귀가에 중얼거린다. 나도 한마디《문예동은 소조나 구락부가 아니다. 결성을 한 이상 이쯤은 해야 해.》 둘 사이에 웃음이 오고갔다.

결성모임은 2부연회에로 넘어갔고 문예동홋가이도지부의 결성을 축하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소중한 말들이 이어졌는데 참으로 민족문학예술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넘친 감격스런 마당이였다.

나는 3차회까지 끌려갔고 어느새 의기양양해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문예동홋가이도 홍건일위원장! 너무 어려워말고 지역밀착형의 좋은 일들을 하나씩 쌓아가자, 언제나 동포들과 함께.》

나는 그와 헤여졌다.

눈이 다시 내린다.

하늘이 주는 결성선물인가봐.

(김정수)

붓글에 담겨진 민족사랑, 동포사랑, 후대사랑

학교사랑의 전시회

지난 5월 고려서예연구회 전국전(17차)이 도꾜에서 성대히 개최되였다.

학교사랑, 후대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동일본대진재로 피해를 입은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전시회》가 특색있게 진행된것이다.

고려서예연구회 리사들은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 후꾸시마조선초중급학교를 방문하여 그곳 학생들과 회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공동대형작품을 훌륭히 완성시켜 전시하였다.

일본의 방방곡곡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번 서예전의 취지에 찬동하여 도호꾸지방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작품들을 글과 그림으로 형상하여 전시장 빼곡이 그 뜨거운 마음들이 새겨진 서예작품기발이 설레였다.

뿐만아니다. 대진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의 혼을 달래는 般若心経의 276개 글자를 276명의 서예애호가들로 완성시킨 대형작품도 이목을 끌었다.

두 학교에 각각 100만엔을

피해를 입은 두 학교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자고 고려서예연구회 장윤식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들과 상임리사들은 재정난속에서도 솔선 돈을 내고 지원금을 받아내였다.

전시장에는 가지런히 나란이 된 채리티소품들이 판매되였고 모금통도 준비되였다.

《어떻게 하나 100만엔씩을 학교에 주고 싶다.》그들의 결심은 대단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도 모자란 돈을 모으느라 동분서주하며 끝내 200만엔을 마련하였다.

전시회축하연에서 도호꾸초중교장선생님에게 목록이 전달되였다.

교장의 두 눈에 뜨거운것이 맺힌것을 그저 볼수가 없었다.

고마운 가무단동무들

이번 전시회의 진행에 있어서 도꾜조선가무단 단원들의 열성이 대단히 컸다.

그들은 전시회의 힘든 전시작업과 반출작업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도와나섰다.

《귀중한 무대배우들인데 이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들도 리사들속에서 나왔다.

그래도 늘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전시작업만이 아니라 개막모임과 축하연에서 공연도 피로해주었다.

아마 단원들도 이번 전시회를 보고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은것 같다.

《가무단이 이런 가까운 존재인줄 몰랐어요.》 고려서예연구회 리사들이 한 말에 김혁순단장이 대답하였다.

《앞으로는 전시회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전시회라면 우린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서예가들과 가무단 단원들의 마음속에 모름지기 동지애가 생겨난것이다.

6명의 녀자들

《위원장! 우린 이 큰 전시회를 6명의 녀자들로 성공시켰어요.》

고려서예연구회 신영애부회장이 한 말이다.

전시회를 성과리에 끝낸 《6명의 녀자들》이 王子의 음식점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엔 희열이 넘친다.

《6명의 녀자들!》

신영애 (고려서예연구회 부회장, 도쿄거주)
현룡귀 (고려서예연구회 부회장, 도쿄거주)
리유화 (고려서예연구회 리사, 가나가와거주)
리순분 (고려서예연구회 리사, 니시도꾜거주)

김성옥 (고려서예연구회 리사, 사이다마거주)
김경순 (고려서예연구회 리사, 도교거주)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한해동안 바쁘게 돌아친《녀성투사들》!
도호꾸지방 두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손에 붓을 쥐여주며 그들의 작은 가슴에 희망의 샘을 부어준 사람들,

일요일마다 한곳에 모여 전국에서 보내온《般若心経》의 276개 글자를 재봉기를 돌려 집어 보물과 같이 간수해야 할 대형걸작품을 완성시킨 사람들,
남들에게 호소하자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저축해온 적은 돈을 솔선 바치고 그 길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200만엔의 지원금을 모은 사람들,
애족애국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녀자 6 명》!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고수를 위해 변함없는 신념으로 살아오면서 이번엔 민족사랑, 학교사랑, 후대사랑의 본보기전시회를 훌륭히 성공시킨 그들에게,
그리고 먼곳에 살면서도 이번 도꾜전을 위해 많은 열성과 힘을 발휘해준 한정자리사 (오까야마), 손정희리사 (기후), 변순옥리사 (후꾸오까) 들에게 마음의 큰 꽃다발을 드리고 싶다.

문예동의 김경숙맹원 (군마현거주) 이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망라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제50차 회의에 참가하였다.
김경숙맹원을 비롯한 대표단어머니들은 현지에서《고등학교무상화》에서의 배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각종 활동을 벌렸다.
그가 창작한 시를 소개한다. 시지《종소리》(55호에서) 전재

대담무쌍 우리 엄마들 김 경 숙

아무도 못말린다니까요
우리 학교 엄마들
한다면 하는 엄마들

유엔이든 어데든 쫓아가서
할 말 꼭 해야겠다
비행기타고 지구를 훌쩍

스위스든 어데든 보무당당
저고리 입고《우리 학교 잘 부탁해요》
길가는 사람들 손잡고

엄격한 경비아저씨도
엉겁결 웃게 하는
환상의 그 미소로

프랑스어든 중국말이든
겁을 모르고 들이대는
기적적인 소통력으로
어마어마한 회의장 분위기
완전히 깨버린
어머니들은 훈훈한 회오리바람

가슴속엔 우리 아이들이
두 어깨엔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조부모님들이 계셔

《쏠테면 쏴라!》
가슴을 노린 일본정부 눈총도
망언의 칼질도 맞받아

대담무쌍 우리 엄마들
전대미문 유엔사무소문앞에 틀고 앉아
세계의 기억속에 우리 학교 지켜야 함을
똑똑히 똑똑히 새겨놓았다!

조국의 사랑속에서 보낸 60 일간

2013 년도 총련지방가무단 신입단원들의 조국강습 진행

지난 5 월 20 일부터 7 월 18 일까지 총련지방가무단 신입단원들의 조국강습이 진행되였다.

이 강습은 가무단 신입단원들의 예술기량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조직하고있는바 올해 강습에는 교또조선가무단 강유리단장 (성악) 을 책임자로 하여 도까이조선가무단 김영수 (성악) , 도꾜조선가무단 최안숙 (무용), 히로시마조선가무단 리경숙 (무용), 김성화 (무용) 단원들 5 명이 참가하였다.

단원들은 공화국창건 65 돐과 전승 60 돐을 대혁신, 대비약으로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마식령속도》로 내달리고있는 조국인민들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신들의 예술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렸다.

조국에서는 가무단 단원들을 위하여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국립민족예술단, 국립인형극단들에서 성악, 무용, 가야금, 장고, 화술부문의 이름있는 강사선생님들이 지도방조하도록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가무단 단원들은 조국강습을 통하여 총련의 예술선전대, 민족성고수운동의 기수답게 민족문화예술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공연안내

《문예통신》 알림

문예동중앙에서는 민족문학예술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 정보지 《문예통신》을 발간하게 되였습니다 .

《문예통신》은 문예동조직들과 맹원들 , 동포문예애호가들의 활동소식을 소개하며 2 달에 한번 (기수의 달) 발행하게 됩니다 .

《문예통신》은 총련중앙의 이메일체계를 통하여 PDF 판을 발신하게 됩니다 .

문예동맹원들과 많은 동포들이 애독해주시며 새로운 문학예술소식들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munedong@r4.dion.ne.jp 문예동중앙 상임위원회